

통상연구실

제 현 정 연구위원

02-6000-5175, hje76@kita.net

장 상 식 통상연구실장

02-6000-5395, paviano@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서명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 회원국이 TPP 협정을 정식 서명했다. 서명 이후 회원국들은 국내 비준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TPP 발효를 위해 가장 중요한 미국은 행정부가 연내 의회 비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PP 발효시 회원국간 역내 소비재 수출 비중과 역내 중간재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회원국간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른 분업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TPP 발효를 가정하여 2030년 기준 TPP 회원국의 GDP가 TPP 미발효시에 비해 0.5~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회원국인 한국은 동일한 기준으로 GDP는 0.3% 감소하고 수출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원산지 충족을 위해 TPP 역내산이 역외산인 한국 제품을 대체하거나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이 잠식당하는데 기인한다. 앞으로 TPP가 한국에 미칠 중장기적인 효과까지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01. TPP 정식 서명 및 향후 일정

-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정식서명 행사가 개최되고, 이후 TPP 서명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
 - TPP 발효는 협정문 요건¹⁾상 반드시 미국의 비준이 선행되어야 하나 일부 회원국들은 미국의 일정과 상관없이 국내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 국회는 이미 TPP 승인을 위해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짐
 -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재계를 초청하여 TPP 승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회 로비를 당부했으나, 미 상공회의소 도나휴 회장은 11월 선거 이전 비준은 힘들 것이라고 언급
 - 현재로서 미의회의 TPP 비준은 11월 대통령 선거 직후 또는 레임덕 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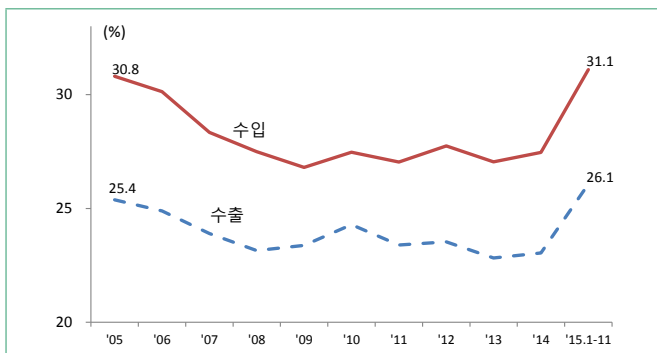
1) 협정문 서명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서명국들(original signatories)이 국내법상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서명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서명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 국가들에 대해서만 협정이 발효됨

02. TPP 역내 무역비중

◎ 세계교역에서 TPP 체결국 수출비중은 상품 26%(2015년), 서비스 25%(2014년)

- TPP 체결국의 GDP 규모는 27.5조 달러로 세계 GDP의 37.4%를 차지하며, EU(16.2조 달러)의 1.7배 수준(2015년 기준)
- 수출(수입)액은 2014년 기준 상품이 4.4조(5.2조)달러, 서비스가 1.2조(1.0조)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2015년 들어 TPP 체결국의 상품무역 비중이 크게 증가
 - 수출비중 증가는 중국, 산유국의 무역이 둔화된 반면 TPP 체결국은 양호한데 기인

세계교역 중 TPP 12개국 상품교역 비중



세계교역 중 TPP 12개국 서비스교역 비중



자료 : WTO

03. TPP 체결국의 품목별 무역구조

◎ 가공단계별로는 수출에서는 소비재, 수입에서는 중간재의 역내무역 비중이 높은 편

- (수출) 소비재의 역내 수출비중(55.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입) 중간재의 역내 조달비중(41.5%)이 여타 1차 상품, 자본재, 소비재에 비해 높음

TPP 체결국의 역내외 가공단계별 수출입 구조(2014년)

(억 달러, %)

	수출			수입		
	전체	역내	역외	전체	역내	역외
1차상품	6,202 (14.2)	2,811 <45.3>	3,390 <54.7>	8,157 (15.7)	2,973 <36.4>	5,184 <63.6>
자본재	7,163 (16.3)	3,513 <49.0>	3,650 <51.0>	9,246 (17.8)	3,247 <35.1>	6,000 <64.9>
소비재	7,182 (16.4)	4,008 <55.8>	3,174 <44.2>	10,648 (20.5)	3,881 <36.4>	6,767 <63.6>
중간재	20,642 (47.1)	9,480 <45.9>	11,162 <54.1>	22,703 (43.7)	9,415 <41.5>	13,288 <58.5>
(부 품)	7,808 (17.8)	3,864 <49.5>	3,944 <50.5>	8,612 (16.6)	3,759 <43.7>	4,852 <56.3>
(반제품)	12,833 (29.3)	5,615 <43.8>	7,218 <56.2>	14,091 (27.1)	5,655 <40.1>	8,436 <59.9>
기타	2,633 (6.0)	820 <31.1>	1,813 <68.9>	1,218 (2.3)	492 <40.4>	726 <59.6>

주 : 1. ()내는 전체금액 대비 비중, < >내는 역내외 비중

2. UNcomtrade 국별통계를 UN의 BEC 코드로 연계하여 분석

◎ TPP의 상위 수입품목 또는 비중 증가 품목 모두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해당

- TPP 역내 수입은 기계류(수송기계 포함), 광산물, 전기전자, 농림수산물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일반기계, 섬유류의 수입 비중이 상승
 - '14년 산업별 수입비중(%) : 기계류(28.4), 광산물(20.0), 전기전자(16.4), 농림수산(10.1)
 - 비중 증가('10→'14,%) : 자동차(9.7→9.9), 석유제품(5.0→5.8), 자동차부품(4.2→4.5), 항공기·부품(2.1→2.7), 원동기·펌프(2.4→2.6), 기계요소(1.3→1.5), 의류(1.0→1.2)

TPP 체결국가의 역내 수입 상위품목(2014년 기준)

(억 달러, %)

순위	품목	2014년		2010년		순위	품목	2014년		201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자동차	1,980	9.9	1,592	9.7	11	곡실류	436	2.2	345	2.1
2	원유	1,453	7.3	962	5.9	12	컴퓨터	428	2.1	514	3.1
3	석유제품	1,164	5.8	811	5.0	13	플라스틱제품	339	1.7	287	1.8
4	자동차부품	900	4.5	682	4.2	14	기호식품	296	1.5	230	1.4
5	반도체	626	3.1	619	3.8	15	기계요소	292	1.5	211	1.3
6	천연가스	566	2.8	372	2.3	16	합성수지	292	1.5	243	1.5
7	항공기/부품	532	2.7	342	2.1	17	농약/의약품	264	1.3	254	1.6
8	원동기/펌프	515	2.6	394	2.4	18	육류	247	1.2	179	1.1
9	무선통신기기	489	2.4	529	3.2	19	정전기기	233	1.2	173	1.1
10	기타잡제품	481	2.4	376	2.3	20	의류	233	1.2	169	1.0

주 : 1. 2014년은 TPP 12개국, 2010년은 브루나이를 제외한 11개국을 분석함
 2. UNcomtrade 국별 HS6단위 통계를 MTI3단위로 연계하여 분석

◎ TPP 12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상 후방참여도는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높은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전방참여도가 높게 나타남

- (전방참여) 공산품의 경우 미국, 일본이 높고, 1차산품의 경우 브루나이, 호주, 칠레가 높아 이들 국가의 기초원료나 중간재를 이용한 역내 가치사슬이 확대될 전망
- (후방참여)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후방참여도가 높아 이들 국가의 생산능력을 활용한 TPP 선진국의 역내 가치사슬 구축이 확대될 전망
 - EU에서는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후방참여도가 40% 후반을 나타내고 있어 TPP 역내 생산우위 국가의 후방참여도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 후방참여도(backward engagement)는 자국 총 수출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비중, 전방참여도(forward engagement)는 타국 총 수출품에 사용된 자국의 중간재 투입비중을 의미

◎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역내 글로벌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전방참여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TPP 체결국의 GVC 전후방 참여 비중(2011년)

(%)

구 분	국가	전산업			제조업	
		수출 국내 부가가치율	후방참여	전방참여	후방참여	전방참여
TPP	브루나이	95.7	4.3	42.7	0.3	31.8
	호주	85.9	14.1	29.5	6.0	24.2
	일본	85.3	14.6	32.8	12.5	28.4
	미국	85.0	15.0	24.9	11.9	18.3
	뉴질랜드	83.3	16.6	16.6	10.2	11.6
	칠레	79.8	20.2	31.7	12.3	27.5
	캐나다	76.5	23.4	19.0	18.5	15.0
	멕시코	68.3	31.7	15.1	30.0	12.4
	베트남	63.7	36.3	16.0	28.6	12.7
	말레이시아	59.4	40.6	19.8	33.2	16.0
	싱가포르	58.2	41.7	19.9	23.2	14.8
EU	체코	54.7	45.1	19.6	39.3	16.0
	슬로바키아	53.2	46.7	20.6	41.9	17.2
	헝가리	51.3	48.5	16.6	41.6	13.0
한국	한국	58.3	41.6	20.5	37.4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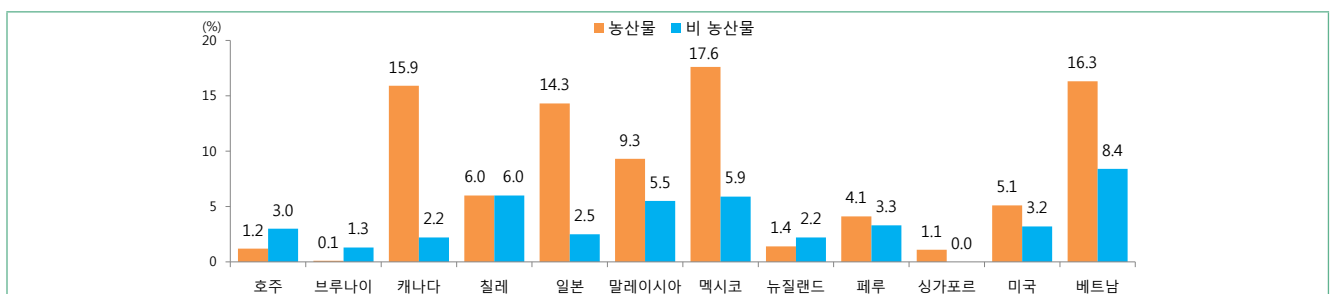
자료 : OECD Tiva(2016.2.2일 열람)

04. TPP 발효시 경제효과

◎ (관세철폐 효과) 관세철폐에 따른 무역 증대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TPP가 2017년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유관세 품목의 75%가 즉시 철폐되며 2030년까지 99%가 철폐될 예정
- 그러나 TPP 역내 국가 대부분이 관세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자간 FTA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TPP 발효 이후 GDP 증가 중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는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따른 효과가 각각 53%, 31%로 예상²⁾

TPP 회원국별 관세율(단순평균) 현황(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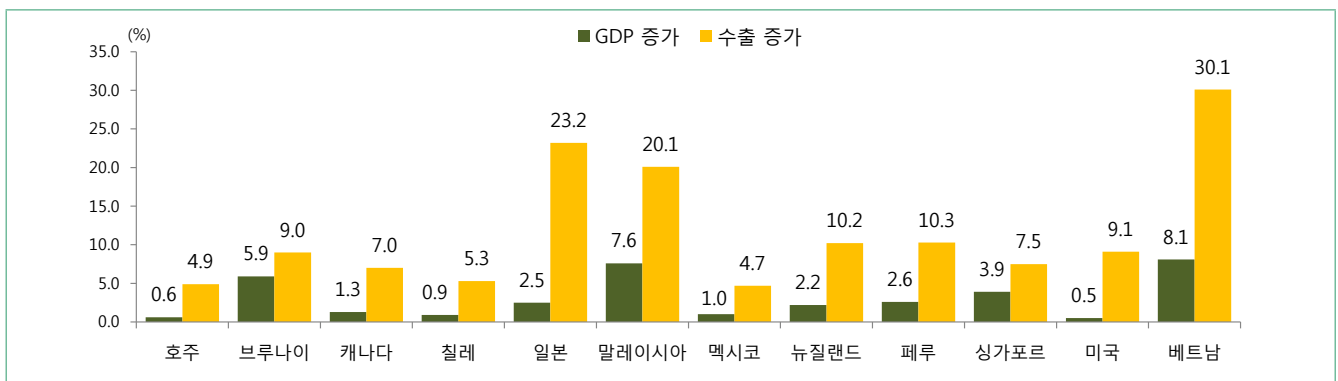
자료 : WTO

2) World Bank, Chapter 4 Implication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in Global Economic Prospects - Spillovers amid Weak Growth, January 2016.

◎ (TPP 역내국 경제효과) TPP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TPP가 2017년에 발효될 경우 2030년 TPP 회원국의 GDP가 TPP 미발효시에 비해 0.5~8.1% 증가할 것으로 전망³⁾

- (GDP) TPP 회원국 중 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8.1%), 말레이시아(7.6%) 순이며, 미국(0.5%)의 GDP 증대 효과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
- (수출) 한편, TPP 회원국의 수출은 2030년 기준 TPP 미발효시에 비해 4.7~30.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 증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30.1%), 일본(23.2%), 말레이시아(20.1%) 순이며, 멕시코(4.7%)의 수출 증대 효과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TPP 지역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효과와 미국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의 자동차 시장 조기 개방 등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TPP에 따른 회원국별 GDP 및 수출 증대 효과(2030년 기준)



주 : 2017년 TPP 발효 가정, 2030년 TPP 미발효시(baseline) 대비 TPP 발효시 GDP 및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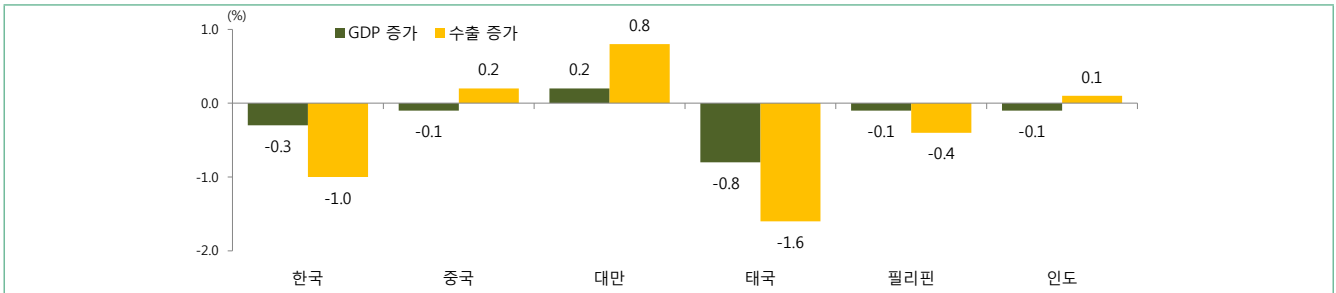
자료 : Peter A. Petri and Michael G. Plummer,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w Estimates'

- (투자) TPP 발효 이후 장벽 해소 등 투자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TPP 회원국에 대한 외국인투자(inward investment)는 2030년 기준 TPP 미발효시에 비해 3.5% 증가하고 해외직접투자(outward investment)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TPP 비회원국 영향) TPP 발효가 비회원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TPP 역내에서 TPP 회원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태국 등에 대한 영향은 대부분 무역 전환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2030년 기준 TPP 미발효시에 비해 중국은 GDP가 0.1%, 태국은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무역 전환효과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한미 FTA에 따른 비교우위를 잠식당하는 효과 때문에 2030년 기준 TPP 미발효시에 비해 GDP가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

3) Peter A. Petri and Michael G. Plummer,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w Estimates', Working Paper, January 2016, PIIE.

- 수출 측면에서는 2030년 기준 TPP 미발효시에 비해 중국(0.2%)과 대만(0.8%)은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한국(-1.0%), 태국(-1.6%), 필리핀(-0.4%)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⁴⁾

TPP에 따른 비회원국 GDP 및 수출 변화(203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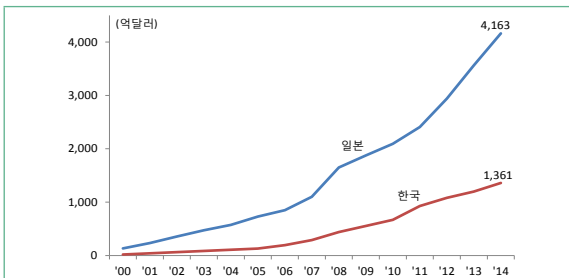


주 : 2017년 TPP 발효 가정, 2030년 TPP 미발효시(baseline) 대비 TPP 발효시의 GDP 및 수출 변화율
 자료 : Peter A. Petri and Michael G. Plummer,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w Estimates'

05. 시사점

- TPP 발효시 회원국간 역내 소비재 수출 비중 및 역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TPP 참여가 필요
- 누적원산지를 활용한 관세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 회원국산, 특히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음
-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치는 효과는 대부분 한미 FTA로 인해 누리던 혜택이 잠식되는데서 비롯되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TPP 역내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TPP 11개국 시장에서의 한·일간 수출경합도(ESI)는 2014년 0.452에서 2015년에는 0.464로 상승
-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일본이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생산력을 더욱 향상시킬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앞으로 TPP 12개국의 국내 비준 절차 추이를 주시하고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칠 중장기적인 효과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임

한국과 일본의 TPP국가 투자액 비교



한국과 일본의 TPP 11개국 수출구조(2015년)

	1차 산품	자본재	소비재	중간재	부품	
					부품	반제품
한국	0.4	23.3	19.9	56.4	25.2	31.2
일본	1.5	20.3	27.2	51.0	31.1	19.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JETRO, KITA.net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제현정 (02-6000-5175, hjje76@kita.net)
 통상연구실장 장상식 (02-6000-5395, paviano@kita.net)

4) 다국가간 FTA인 TPP는 기존 회원국간 양자 FTA에 따른 장벽을 해소시켜 무역 전환효과보다는 무역 창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역외국인 중국, 대만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